



고릴라 미용실

글 박준희, 그림 한담희/ 책고래



기발하고 유쾌한 상상, 미용실에 울끈불끈 고릴라가 나타났다!

홍두는 미용실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예요.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안 가겠다고 버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고릴라 미용실’이라는 수상한 이름을 가진 미용실이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고릴라 미용실을 찾아간 홍두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미용실에 털이 북슬북슬한 진짜 고릴라들이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고릴라 미용사라니! 놀랍지 않나요? 《고릴라 미용실》은 이렇듯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상상이 담긴 동화책입니다. 사투사투 부담없이 책장을 넘기며 한바탕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요.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라고 공감하면서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느라 지친 아이들에게 ‘미용실에 고릴라가 있다’는 깜찍한 소식을 전해 보세요. 긴장을 풀고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고릴라들의 이야기에 속 빠져들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독후 이해 활동

㉠ 다음을 읽고 책 속 내용과 맞으면 O, 틀리면 X 표를 ()안에 하세요.

홍두는 미용실
가는 것을
좋아한다
()

고릴라
미용실은 새로
개업했다
()

홍두는
블록을 좋아한다
()

아빠는
탈모 걱정이 없다
()

민 고릴라들은
처음부터
인간털을 붙였다
()

털박사는
척척본드를
개발했다
()

홍두는
로봇 블록을
선물 받았다
()

홍두는 겨울방학
중이다
()

아기 고릴라들은
털 체험학습을
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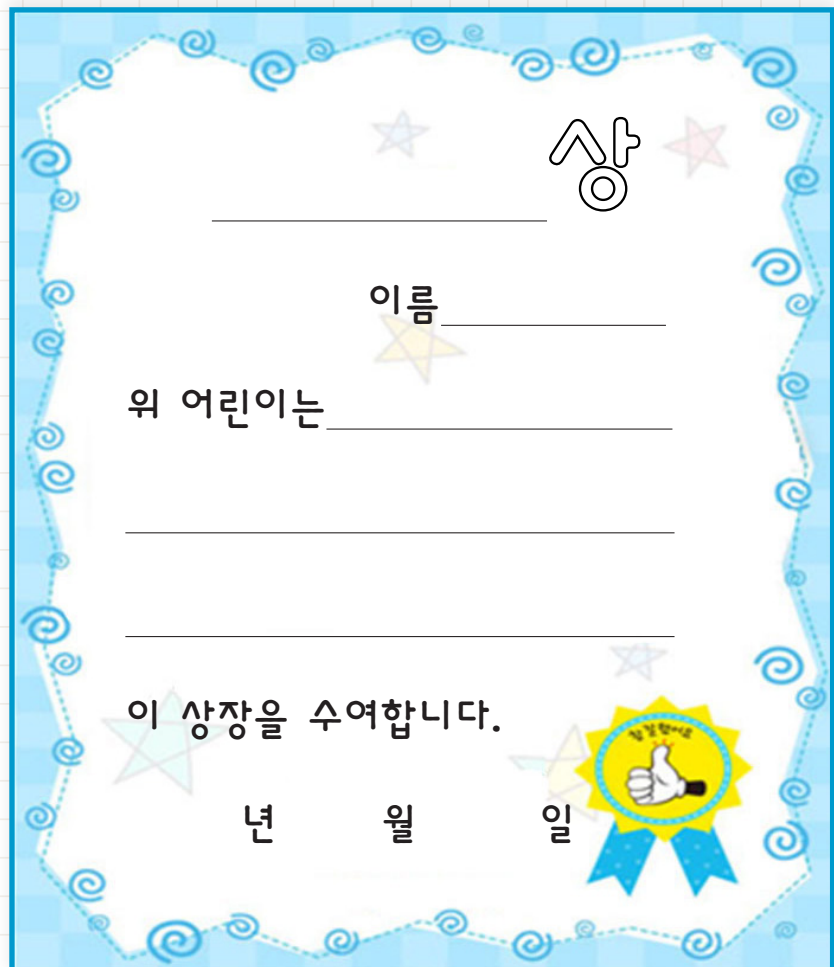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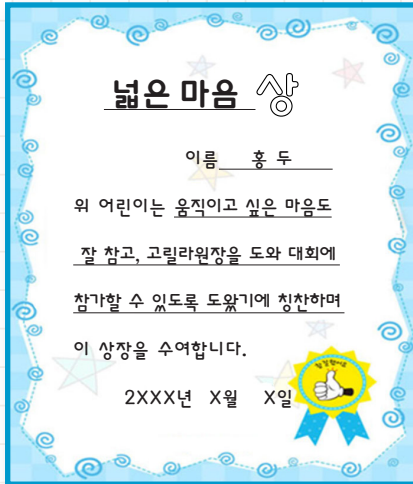
올해 털 축제에
원장은 지각했다
()

엄마는
검은색으로
염색했다
()

원장은 세계 헤어
대 축제 그랑프리
수상을 받았다
()

Q 홍두처럼 가야할 곳에 가기 싫다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기 싫은 것이 있나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실천해 보고 스스로에게 칭찬이나 격려하는 상장을 만들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주는 칭찬과 격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시안)



독후 활동 이어가기

Q 미용사가 되어 세계 헤어 대 축제에 참가하는 고릴라 원장을 멋지게 꾸며 보세요.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거나 꾸밈 재료를 이용해도 좋아요. (털실, 색종이, 수수깡, 빨대, 모루, 골판지, 이쑤시개, 색연필, 싸인펜 등)

